

폐암 환자에서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 투약 중 발생한 장관 기종 증례 보고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김정곤, 이성윤

폐암 환자에서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 투약 중 발생한 장관 기종의 증례 3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장관 기종 및 공기 복증의 발생은 무증상의 경우부터 수술적 교정을 요하는 응급 상황까지 다양한 임상적 상황을 보여준다. 본 증례를 보고하는 것은, 장관 기종이 발생한 임상적 상황과 장관 기종의 중증도, 치료 방법에 대한 참고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3 예에서는 모두 장관 점막이 취약하거나 점막 손상이 의심될 만한 병력이 있었다. 알칼리성의 잿물을 마신 병력, 장기간의 금식, 이미 여러 회의 항암 치료를 거둬본 경우 등이 그에 해당된다. 본 증례에서는 장관 기종의 원인이기도 한 기종의 병력을 가진 환자도 있었다. 3 증례 모두에서 단순 흉부 또는 복부 방사선 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우연히 장관 기종 및 공기 복증이 발견되었다. 장관 기종과 관련하여 발생한 증상, 징후의 변화는 없었다. 장관 기종 발생 전후로 감염 및 대사성 산증과 관련된 의미있는 혈액 검사 결과의 변화도 없었다. 금식 및 비경구 영양을 유지하면서 장관 기종은 서서히 호전되었고 장관 영양을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도 장관 기종, 공기 복증의 재발은 관찰되지 않았다. 3 예 중에서 침습적인 처치 및 수술적 치료를 한 예는 없었다. 첫 번째 예에서는 장관 기종 호전 이후 추가로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았고 장관 기종 진단 시점으로부터 5개월 이후 폐렴에 의한 폐혈 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두 번째, 세 번째 예에서는 장관 기종이 호전된 이후 추가 항암 치료는 보류한 상태에서 타 병원으로 전원 후 추적 소실되었다. 장관 기종의 발생과 장기적인 예후와의 상관 관계, 항암 치료 재시작 시의 장관 기종 재발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Management of internal jugular vein thrombosis associated with chemoport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천병원 중앙혈액내과

*이원명, 윤진아, 김세형, 김현정, 김찬규, 박성규, 홍대식

항암제를 반복적으로 투여받는 암환자에서 케모포트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다. 케모포트와 관련된 합병증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카테터관련 혈전은 감염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다. 카테터 관련 혈전에는 카테터 내부 폐색과 카테터 관련 정맥혈전이 있다. 내부 폐색의 경우는 카테터 내부에 예방적으로 헤파린을 채우거나, 유로키나제로 혈전을 녹이는 등의 치침이 있지만, 카테터로 인한 정맥혈전의 경우는 정확한 치료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51세 여자는 난소암의 재발을 진단받고 케모포트를 오른쪽 빗장밑정맥에 주입하고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 3번째 항암치료를 위해 내원하였을 때 오른쪽 목 부분에 통증 및 발적이 있었고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오른쪽 내부목정맥에 혈전이 관찰되었다. 케모포트의 위치변화는 없었고 내부 폐색도 없었다. 2주 동안 항생제 및 저분자량헤파린 및 와파린을 사용하였지만, 전산화단층촬영에서 혈전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1A). 68세 여자는 대장암3기 진단받고 수술 후 오른쪽 빗장밑정맥에 케모포트를 주입하고 보조항암 치료를 시행하였다. 4번째 항암치료 후에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였고, 오른쪽 내부목정맥에 무증상 혈전이 관찰되었다. 2주 동안 저분자량헤파린 및 와파린을 사용하였지만 전산화단층촬영에서 혈전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1B). 두 환자는 모두 케모포트를 제거하였고, 저분자량헤파린과 와파린을 2주 더 사용한 후 전산화단층촬영을 하였다. 두 환자 모두 내부목정맥의 혈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케모포트로 인해 내부목정맥에 혈전이 발생한 경우는 포트 로 인한 혈류장애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동반된 것으로, 항혈전치료 만으로는 혈전이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케모포트와 관련된 내부목정맥의 혈전은 초기에 케모포트를 제거하여 외부적 혈류장애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